

ITU의 운영방식은? (How is ITU Governed?)

4년마다 개최되는 전권회의는 ITU 최상위 운영조직으로, 회원국들이 ITU의 향후 역할을 결정하는 행사입니다. 2014 전권회의(PP-14)는 한국 부산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립니다.

‘전권(plenipotentiary)’이라는 용어는 대표단을 이끄는 각 회원국 대표들이 자신의 정부를 대표해 전권회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의미합니다. 최종의정서 중, ITU 헌장과 협약에 대한 수정은 국제 조약의 역할을 합니다.

전권회의에서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전파통신총국, 전기통신표준화총국, 전기통신개발총국의 각 국장들 및 전파규칙위원회의 위원들이 선출됩니다. 전권회의는 또한 향후 4년간 ITU의 활동과 예산을 결정하는 두 주요 문서인 전략 및 재정 계획(the Strategic and Financial Plans)도 승인합니다.

전권회의에는 ITU 회원국 각국의 대표단이 회원국을 대표해 참석합니다. 대표단의 규모나 구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ITU는 회원국들이 공공 및 민간분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독려하고 성비의 균형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전권회의는 ITU의 고위 선출직 다섯 명 외에도, 차기 [ITU 이사회](#)를 구성할 이사국(현 48개국)을 선출합니다. 이사회는 이번 전권회의부터 차기 전권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운영기관 역할을 합니다.

ITU 이사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소집되며, 48개 이사국의 대표들이 전반적인 전기통신 정책 이슈를 검토하여, ITU의 활동 및 정책, 전략 등이 행정적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의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ITU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특화된 [실무반](#)을 구성하여 특정 사안에 대처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ITU 헌장의 규정, ITU 협약, 행정 규칙(국제 전기통신 규칙 및 전파 규칙), ITU 전권회의·기타 컨퍼런스 및 회의의 결정과 결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ITU 이사회 회원국들은 전세계 다섯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지역에 배정된 이사회 의석 수는 각 지역의 총 ITU 회원국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사회 의석 수는 각 지역 ITU 회원국 수의 25%를 기준으로 하며, 총 의석 수는 2010 전권회의 때 ITU 의 회원국 수 증가(현재 193 개 국)를 반영하기 위해 46 석에서 48 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 이사국(2011-2014)

A 지역 — 미주 (9 석)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쿠바, 멕시코, 파라과이, 미국, 베네수엘라

B 지역 — 서유럽 (8 석)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C 지역 — 동유럽 (5 석)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D 지역 — 아프리카 (13 석)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이집트, 가나, 케냐, 말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세네갈, 르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니지

E 지역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13 석)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태국, UAE

[이사회 트로이카](#)는 2001 년 개혁에 관한 이사회 실무반의 권고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이사회 결의 1181 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트로이카는 이전, 현재, 이후 이사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장직 이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합니다.

ITU 이사회 소속기관인 IMAC([독립관리자문위원회](#))은 전문가 자문 자격으로 이사회와 사무총장에 자문을 제공해, ITU 의 내부 통솔 체계, 리스크 관리, 운영 절차 등의 효율성을 통해 각각의 운영 책임을 다하도록 돕습니다. IMAC 은 [2010 년 전권회의 결의 162 호 부기](#)에 서술된 위임사항에 따라 미주, 유럽, CIS(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출신의 다섯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 심사단에 의해 선발됩니다. IMAC 위원의 임기는 4 년입니다.

PP-14 에서 투표권한은 누구에게?

ITU 의 탄탄한 의견 일치 수렴 전통 때문에 컨퍼런스에서의 투표는 ITU 최고 지도부 선출과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및 이사국 선출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임시 그룹에서부터 실질법을 다루는 위원회(PP-14 의 경우, 위원회 5 와 6), 본회의 실무반 및 모든 본회의 세션에 이르기까지 전권회의의 어느 회의에서라도 투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거수에 의한 의사표시 형식(투표할 권리가 있는 대표단들이 붉은 점이 있는 하얀색 막대기 ‘paddle’을 들어 의사표시)을 취할 수도 있고, 호명 투표(투표권이 있는 국가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국가들이 찬성·반대·기권의사를 표시) 또는 비밀 투표(투표 중 회의실 출입을 ‘봉쇄’하고 국가들이 차례로 무기명 투표용지를 제출)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국만 투표할 수 있으며, 부문회원 및 참관인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을 획득하려면, 회원국들은 유효한 ‘자격(credential)’을 갖춰야 합니다. 즉, 대표단은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의 정부가 부여한 완전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ITU 헌장과 협약을 비준한 상태여야 하고, 해당 회원국의 당 해 ITU 분담금 액수가 앞서 2 년 동안 지급한 분담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그 회원국은 ITU 분담금 지급을 연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적절한 자격을 갖춰 대리투표 권한을 부여 받은 경우, 다른 한 회원국을 대리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투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선택한 국가들은 찬성표, 반대표 또는 기권표를 낼 수 있으며, 투표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 국가들은 기권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기권을 원하는 국가들은 공식 기권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는 전권회의 최종의정서에 서명할 때 해당 결정에 대한 공식 유보/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